학년을 마치며 신창훈 목사

성경 고린도 전서 11장 31절 보겠습니다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후 11:31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1 Corintios 11 :31 Si, pues, nos examinásemos a nosotros mismos, no seríamos juzgados;

이번주 공과는 52과 학기를 마치며입니다. 벌써 학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더라구요 머릿돌을 살펴봤더니 52과

학기를 마치며라고 되어있고 뒤에 관련된 내용은 별로 안나와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반아이들과 인사도 하고 또 작별 하는 시간도 갖고 하느라고

다른 내용들을 안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분반시간은 그렇게 보낼 수 있겠지만 학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교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한 자신을 돌아봐야될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학기가 마무리 된다. 학년이 마무리 된다. 혹은 어떤일이 마무리 된다 할 때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평가와 반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국 교사 수련회를 하던 혹은 작은 집회를 하던 아니면 그날 어떤일을

하던 간에 그 마무리는 항상 반성과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의 계획을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세운다면 하루를 마무리 할 때는

또는 누운 자리에서건 아니면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건 하루를 반성하고 평가하는 시간으로

그런 기도로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한 학년을 마무리 하는 이 때에 우리는 반성과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것은 결국 죄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서 결국은

죽게되는 그런 교인들도 많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또 한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반성과 평가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자주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적다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것이 뭘까요? 자주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적다 실수 후회
답이 후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주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주 반성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번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반성하고 평가를 해봐야 될까?

이시간에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사가 학년을 마치면서 반성해보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게 바로 나의 수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수업을 위해 얼마나 준비를 했었고 수업을 얼마나 충실히 진행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돌아봐야할 첫 번째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Los profetas que profetizaron de la gracia destinada a vosotros, inquirieron y diligentemente indagaron acerca de esta salvación,

11.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escudriñando qué persona y qué tiempo indicaba el Espíritu de Cristo que estaba en ellos, el cual anunciaba de antemano los sufrimientos de Cristo, y las glorias que vendrían tras ellos.

12절은 첫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A éstos se les reveló que no para sí mismos, sino para nosotros,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administraban las cosas que ahora os son anunciadas por los que os han predicado el evangelio por el Espíritu Santo enviado del cielo; cosas en las cuales anhelan mirar los ángeles.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하면서

그것을 섬긴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백성을 섬겼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섬겼을까?

그것은 바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한 것이다.

결국 각각의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사교육에서 항상 배우는 냄비에 지지는 일 혹은 그릇을 수요대로 내오고 들어가고 하는 일
안식일에 떡을 올리는 일 여러 가지 섬기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섬기는 일에 통달한 이스라엘 레위인들을

역대하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했다라고 표현을 해줬거든요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통달한 것은 그릇 내오고 들여가는 것에 통달했고

냄비 지지는 것에 통달했고 떡 굽는 것에 통달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통달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섬기는 일에 통달했다고 인정해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통달하자 그런 이야기를 전에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결국 교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그것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교훈이 되게 전달해주는게 가장 잘 섬기는 일일 것 같아요 즉 수업을 충실히 이행하는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이 것을 상고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았고 연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다. 나 역시 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인데

나는 과연 수업준비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첫째 혹 수업시간에 빠지거나 결석 지각하지

않았는가? 이건 가장 치명적인 것이죠 수업자체가 파행으로 치닫는 거잖아요?

요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등원하지 않아서 국회자체가 파행쪽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치명적인 것이 교사가 결석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나의 출근율 출근율이라고 하니까 이상한가요? 나의 주일에 수업참여도는 얼마나 됐을까?

혹 52주 중에 어떤 사유로 1,2주 정도 빠졌따고 하더라고 그에 대해 반성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물며 1,2주가 넘어서서 3,4주 5주 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로 교

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내가 지난 한해동안 몇 번 수업을 빠졌는가? 몇 번 수업을 늦었는가 ?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반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업에 빠지지 않았다 할 지라도 얼마나 수업준비에 충실해서 왔는가 하는 것도 돌아볼 일이죠

나는 과연 머릿돌에 나와있는 관련 성경 장들을 다 읽고 수업에 참여했는가?

보통 머릿돌에 보면 관련성경 몇장 몇장이 나와있거든요 대부분 그 장들을 여러번 묵상하고 오셨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 내가 그 장들을 읽지 못하고 그냥 머릿돌만 읽고 왔다면 그것도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머릿돌에 나와있는 암송을 교사는 얼마나 암송하고왔는가? 혹 주일에 주일 암송을 외울 때 고개를 숙이고

컨닝 하는 것처럼 나는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켜놓고 나 자신은 암송을 못해놓고 컨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뿐아니라 얼마만큼 분반지도안을 충실하게 작성을 했고 관련된 분반 수업과 관련된 보조 교제들

시청각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만들기 자료가 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과연 그 보조자료 들을 활용을 했고 만들어왔고 준비를 했었는가? 어떤 경우는 52주 내내 말로만

수업을 분반을 진행해왔다고 한다면 물론 말로만 하는 분반이 꼭 잘 못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성면에서 어떻게 전달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수업에 빠진 아이들에게 연락은 했었는지, 1주일에 보통 1번정도는 연락을 해보지 않습니까?

수업에 빠진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봤었는지 그 아이들에게 이번 수업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

주었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갔는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볼 문제고 또한 그 학부모와 얼마나 통화를 했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어디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학교에서 교사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학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10분의 1도 못 미친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잘못이해하면 그러면 교사는 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사가 학부모와 연계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의 역할을 일깨우고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해주며 교제해주는게 교사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부모의 이름은 알고 있는지 혹시 전화는 얼마나 자주 했는지

또 만나봐서 자녀문제를 교제해 본적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혹시 편지를 주고 받은 적은 있는지 분반아이들과 또 그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한 적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수업 체크 요건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어떤 티비를 보니까요? 모 텔런트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텔런트인데 그분이 항상 느끼한 이야기를 잘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구만요

무대는 나에게 있어서 성전이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카메라 돌아가는 무대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한 신성한 공간이라는 거죠 꼭 옛날 만화책에 나오는 대사 같아요 그 사람이 그거 보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카메라 돌아갈 때 취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이 가더라구요

그 사람은 정말 촬영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일컬어서 훌륭한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상대방 변호사가 당신이 어떻게 훌륭한 변호사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변호사가 한 말이 첫째 나는 법을 잘 알고 있고 둘째 그 법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 그 법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던 변호사다 나는 훌륭한 변호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만일 나도 성경을 잘 알고있고 만일 그 성경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들려줄지 적용시킬지 방법을 알고 있고 그를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면

나도 훌륭한 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성해 볼 것은 교사로써 가장중요한 수업준비에 있어서 나는 얼만 충실했는가?

이것이 한 학년을 마치면서 필요한 첫 번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디오 다시 찍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가서...

두 번째 우리가 반성해 볼 것은 실제로 이렇게 수업준비를 충실히 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 결과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결과가 있었느냐는 거죠 물로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것은 단 1년만에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단지 나에게 달린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들이 다 연합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년만으로 평가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기 초에 비해서 이 아이들이 분명히 키가 자란만큼 얼마나 영적으로 나에게 배움으로써 성장했는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 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y que desde la niñez has sabido las Sagradas Escrituras, las cuales te pueden hacer sabio para la salvación por la fe que es en Cristo Jesús.

16절 17절은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그래서 성경을 안보고 제 얼굴을 보고 한번 암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16.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Toda la Escritura es inspirada por Dios, y útil para enseñar, para redarg:uir, para corregir, para instruir en justicia,

17.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a fin de que el hombre de Dios sea perfecto, enteramente preparado para toda buena obra.

여기에 보면 성경을 배우는 2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첫 째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죄인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계속 배워나감에 따라 결국엔 작은 예수님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온전케 하는게 되게 하는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information을 전달한다는게 아니라 그 대상을 transformation 하는데 있다 그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어린이 집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거든요

6세나 7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25분 정도 주어져있어요 길게는 30분인데

그 30분간 한 공과를 설명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설명하고 나온 다음에 항상 돌아볼 때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성경 이야기해주고 나왔지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적이 많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였는데 요단강에 7번 씻고 나서 깨끗해 졌단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되는게 없어

그렇게 말해놓고 적용을 안시키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성경이야기 하고

제가 얻은 교훈 한 두가지 이야기 하고 그냥 나오는데 과연 이 야이기를 듣고 아이들이 변화될까?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이야기 많이 해주는 것은 지식 증가라는 효과는 있

지만 그 아이가 실제로 변화되는데 있어서는

단지 그 말씀만 읽음으로써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아이들에게 1년간 올바른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단지 그 아이들이 성경지식이 늘었다라는 것 뿐아니라 실제로 변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학년을 마치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혹 인사 하나라도 분명하게 배우고

이 학년을 지나가는가 존댓말이라도 혹은 행동이라도 뛰던 아이가 걷는다든지 인상쓰던 아이가 웃는다든지

이 교실에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고 뛰놀던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던지 이러한 가시적인 변화가

하나라도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아이들이 있는지

또 구원받은 아이라면 행동이 변한 아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봐야 겠죠 또 체크해본다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1년동안 수업을 통해서 어떤 비전, 꿈을 심어 주었는지

이 아이는 1년동안 배우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겼는지 원래 교사를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1년 내내 배우고 났는데 마음속의 꿈은 여전히 세상적인 거고 전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얼마나 우리 분반아이들을 칭찬해줬는가 얼마나 쓰다듬어줬고 얼마나 안아줬는가?

우리가 학부모 간담회 때도 공부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표현되는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했고 얼마나 많이 안아줬고

얼마나 많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웃어줬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는가 ?

1년을 돌아보면서요 지난 1년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반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봤는데 별로 기억이 안난다

왜? 다 똑같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조금 아쉬운 일이죠 만일 정말 연구하고 준비하고 분반을 했다라면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몇 순간 이라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물엇을 때 아마 모든 아이들의 입에서

아 이때가 가장 보람있었어요 이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어요 아이들 입에서 나올 겁니다.

내 입에서도 나오지 않고 아이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 것도 분반시간에 교제해 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난 1년동안 나 자신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수업

내용이 좋아졌다.
그리고 나에게 배운 아이들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성장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업도 똑같고 아이들도 그대로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내가 성장했다라면 내가 가르치는 내용도 달라지고 아이들도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텐데

그들이 변화가 없다라면 나에게 문제가 없지는 않았는가?

결국 나도 1년이라는 신앙생활을 더 했는데 또 교사로써 했는데 그런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5. Ocúpate en estas cosas; permanece en ellas, para que tu aprovechamiento sea manifiesto a todos.

이 디모데는 굉장히 어려운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이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가서 교제를 이끌어 나가려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나이많은 사람은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무시했을 것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디모데가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시 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은 자기의 돈을 권력삼아서 목회자를 무시했을 수도 있고

혹은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세상지식으로 디모데의 설교라든지 목회를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진정으로 에베소교회의 목회자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열심을 내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모든일에 본을 보이고 열심을 내라 전심전력해라 그래서 너의 진보가 나타날 때에야 비로서 그 열매를 보고

너를 지도자로 인정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리더쉽 책에 보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변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무디는 구두수선공이었지만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나타냈기에 모든 사람이 무디를 존경했습니다

스펄전도 정규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설교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목회자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이라든지 우리의 세상지식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사됨을 하나님이 세운 교사됨을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진보가 나타나야되겠죠 그래서 지난 1년동안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1독을 했는지 2독을 했는지 혹은 한번도 읽지 못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게 겠습니다. 보통 구약 한번

신약 3번 읽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 나와있는데로 읽으면 우리 교사들은 그것보다 더 읽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구약2독 신약 3독이상 5독정도 했으면 좋겠다 만일 못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주보에 있는것처럼

구약1독 신약3독은 했어야 했는데 과연 내 성경읽기표는 어떤 색깔이 칠해져 있는지

혹은 아예 성경읽기표가 없는지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인데 동일한

기도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동응답기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말이 계속 나오는 기도가 아닌지

그리고 교제 참석은 어떻게 했는지? 교사를 핑계로 구역모임에 안나간다든지 청년 모임에 너무 소홀한다든지

물론 어쩔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쩔수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교제는 빠지지 말고 참석하자

그리고 나의 말고 행동과 태도는 얼마나 달라졌냐? 아직도 세상것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것에서

일희일비 하고 있는가? 웃고 울고 있는가? 혹은 올해에는 더욱더 내 눈이 각도가 높아져서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내 고개가 더 낮아졌다라면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면 퇴보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 고개가 높아져서 저 천국을 더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을 더 앙망하고

하루라도 빨리 저 천국에 갈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도 진보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열매인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있었는가? 나를 통해서

작년 1년 동안 내가 전도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혹 말 꺼내 본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있는지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열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몇 년전에 하던 부모님 전도에 대한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는지

직장동료라든지 주변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그냥 열매없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나의 성장도를 체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 즉 3가지 첫째 학습에 대해서 수업시간을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둘째 가르침으로 인해 아이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셋째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 세가지가 올바로 평가가 된다라면 이제 3월부터 새로 시작될 분반에 대한 각오가 슬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은 반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진보를 위해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못된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 하기 위해서

더 굳은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뀌기 위한 지침들을 세우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에서 새 학년들을 마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 학년을 맞이했을 때에는 더 나은 수업

그리고 더 변화된 아이들 그리고 더 성장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 Hermanos míos, no os hagáis maestros muchos de vosotros, sabiendo que recibiremos mayor condenación.

반드시 직분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그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결과로써 상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되어있죠

가르치는 일에는 더 큰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그러나 한 학년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판단해보는게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판단하실 겁니다.

한학년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더 굳은 각오를 하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